

J.G. Luiz de Medina 著

《덜고 먼 까오리(高麗)》

—16세기 한국 개교와 일본 예수회—

李元淳/서울대 교수

I

16세기 격동기 동아시아 미지의 왕국 '까오리' (조선의 서양식 한 호칭—서평자註)에 포교를 열망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국경은 굳게 잠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두 차례에 걸친 일본군의 침략 (임진·정유왜란—서평자註) 가운데서 그 땅에는 신앙의 씨가 파종되었고, 일본 땅에 끌려간 까오리 납치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의 첫 열매가 맺어졌다. 납치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송환되어 까오리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땅에서 영광의 순교를 획득하였다. 그 후에도 그 땅에 대한 선교사들의 생각은 끊이지 않았고, 기리스당(吉利支丹: 영어 크리스찬의 포르투갈어 발음—서평자註) 탄압 아래의 일본에서, 또는 건국[적후]의 청나라로부터 “덜고 먼 까오리”를 꿈꾸던 사람들은 각기의 상황 가운데서 정보를 입수하기에 힘썼고 입국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흥미진진한 책자가 일본에서 최근 간행되어 독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986년 로마 예수회(IHSI) 歴史研究所의 연구원인 Juan Garcia Luiz de Medina 신부에 의해 로마에서 스페인어로 간행된 <Origenes de la Iglesia Catolica Coreana> (한국 가톨릭 교회의 發源—서평자註)이라는 책의 일본어 판이다.

저자 메디나 신부는 1927년 스페인 마드리드 출생으로 1940년에 예수회에 입회하고 8년 후에 일본으로 파견되었으며 1961년에 사제로 서품되었다. 그 후 중국 각지서 활동하다가 1974년에서 1979년까지 일본 야마구치시(山口市)의 사비에르 資料館에서 근무하다, 1981년 로마 예수회 역사연구소로 전속되어 현재 그 연구소의 일본 기리스당 연구부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예수회 신부이다. 약 30년간 일본서 생활한 일본통의 성직자이며 일본어가 매우 유창하고 1987년 10월 6일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위 書評은 「교회와 역사」 165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의 초청으로 서울에 와서 〈韓國 天主教傳來의 起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때 필자를 포함한 5명의 토론자와 더불어 학술(토론의) 모임을 가진 바도 있으며, 그 당시 그의 논문 초록과 한국측 학자들의 논평이 서울의 몇몇 일간지와 〈가톨릭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II

메디나 신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로마 예수회 역사연구소로부터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예수회와 한국과의 관계를 밝혀 주기를 요청받게 됨으로서였다. 그는 이 요청을 받고 그가 평소 한국에 관해 품었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하여, 일본 역사에 관한 연구를 중단하고 먼저 이 책을 엮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유럽의 다섯 고문서관(Madrid 국립역사고문서관, Lisbon 해외역사고문서관, Alcal'a de Henares의 예수회Toreol 관구고문서관, 로마의 예수회 고문서관, Madrid의 왕립역사한립원)의 자료를 섭렵하고 이 책을 엮었다.

본서는 제 1장 〈前史—日本 속의 高麗〉, 제 2장 〈布敎에의 길—침략의 半島로〉, 제 3장 〈첫 이삭(初穗)—피납인의 領洗, 殉敎와 布敎의 계속〉, 제 4장 〈까오리의 아름다운 교회와 다수의 信徒〉, 그리고 제 5장 〈北京으로부터의 구상〉 등 5장으로 구분된 제 1부와 총 58건의 原史料(모두가 예수회와 방지거회·도밍고회 성직자의 서한과 일부의 유럽인 및 조선인 여성 기리스당 오마 주

리아의 서한)를 번역 수록한 제 2부 〈未刊史料〉로 편제되어 있으며, 권말 부록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 연대표'·'참고 문헌', 그리고 '인명 색인'이 붙여져 있는 국판 381쪽의 간행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일반적 한국 교회사의 이해, 요컨대 1세기 이상에 걸친 사대사행원과 북경 예수회원간의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한 한역서학사의 조선왕국 도입, 그리고 그 한역서학서를 가지고 조선 西學者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 천주 신앙에 도달한 사실, 李承薰의 영세 귀국 후 李璣·權日身 등 천주 신앙의 개우침을 가졌던 인물들의 자진 영세와 신앙 공동체의 창설, 그 신앙 공동체의 계속적 발전과 성직자의 영입에 의한 교계적 교회로의 발전이라는 신앙의 도달과 교회 창설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예수회 소속 성직자들의 활동으로 조선 전도가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왜란으로 납치된 조선인 俘虜들의 교화로 한국인의 그리스도교회사가 시작되었고, 그들 가운데 다행히도 본국으로 송환된 조선인 기리스당에 의해 국내에 아름다운 교회가 창설되었고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였으며, 그 교회를 위해 예수회 성직자들이 조선왕국에 입국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위해 정력적으로 예수회측 사료를 천착하여 내용을 편술하였다. 또한 이승훈의 세례 귀국에 앞서 중국 예수회(耶蘇會)의 적극적인 전교 활동이 조선 교회로선도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하여 서문에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상스러운 일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自然發生的인 결과가 아니다(자생적(自生的) 교회가 아니라 뜻—서평자 註). 외국인 선교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반 신자에 의해 창립된 것도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이 근거 없는 견해는 촛점을 벗어난 국수지상주의(國粹至上主義)를 퍼뜨리고자 하는 교회 내 소수의 그룹이 만들어 놓은 근대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 복음이 한국에서 퍼지게 된 방법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 교회사상의 예외라고 말할 수도 없다. … 한국은 자기들의 교회에 대하여 합당치 않은 호칭이나 허구의 特權書나 거짓된 榮冠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pp. 4~5)고 하여, 현재 한국 교회사 연구자들의 교회사 인식을 송두리째 불식하고 잘못된 의식을 가진 자들에 의한 국수주의적 조작이며 거짓의 역사라고 엄하게 단정해 놓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국을 얻고자 하는 생각은 스페인 태생의 예수회사 Cosme de Torres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Francisco Xavier의 동료였고 후계자가 된 인물이다. 그가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첫발을 1566년에 내딛게 한 선구자이다. 그는 포르투갈 태생의 Gaspar Vilela 신부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예상의 일에 방해받아 제도에 오르기 시작한 그 계획은 종결되지는 못하였으나 Cosme de Torres 신부는 한국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고자 한 한국 교회 초대의 진정한 父祖라고 할 수 있다”(p. 6)는 사실과 “복음이 한국에 유포된 방법도 한국이 세계 교회사상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정확하게 말한다면 1584년에 출간된 Michel Rugierri 신부의 <敎理問答書>는 출판된 얼마 후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것은 중국 각지 및 코친차이나 왕국에 유포된 것과 같은 때였다. 복음을 한국에 소개한 초기의 열심한 일반 신도는 조국 이외의 장소에서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다. 더우기 사도직을 위한 훈련을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받았다. 그 역할을 담당한 외국 선교사로는 특히 국제적,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적’ 특색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예수회사들을 들 수 있다”(pp. 4~5)는 사실, 즉 한국 교회의 창설에 있어 예수회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촛점이 놓여져 있다.

III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저자 메디나 신부는 극명하게 예수회 전교 성직자들의 통신문인 書簡들을 독파, 분석하여 그의 주장을 입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제 1장 전사에서 상고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韓日交涉史를 약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섭사는 일본의 고대 사료와 예수회 선교사들의 전문 기록에 의해 편술되고 있어 그 내용이 부실하고 형평을 잃고 있다. 한국에 관한 교

회사 序章이면서도 한국측 사료나 연구를 전혀 도의시키고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저자가 일본어에 능통하고 한국어에 무지하다는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서 오는 것으로 이해되나, 영문으로 발간된 한국사 관제의 서책이 여러 종류나 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 내용의 많은 사실은 이미 일본 그리스도교 연구물을 통하여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는 점도 적지 않다. 또한 簡書이라는 사료를 치밀하게 활용하여 설명되고 있어 신선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 점 저자 메디나 신부의 정열과 학구에 경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전사를 제외한 제 1부의 내용은 결국

첫째, 1549년에 개교된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예수회 성직자들에 의한 조선 전도의 노력이 있었다는 일

둘째, 임진왜란 때 조선 현지에 일본 예수회 성직자들이 건너와 활동했다는 일

셋째, 왜란 때 일본으로 납치된 조선인들의 그리스도교 입교자가 많았고, 순교자도 다수 생겼다는 일

네째, 일본 그리스도교회의 조선인 신자가 생김으로서 조선 천주교회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일

다섯째, 전후에 본국으로 귀환한 피납인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자가 다수

있었고, 귀국 후 계속적인 신앙 활동으로 교회가 건설되었다는 일

여섯째, 한반도 내의 교회를 위해 예수회 성직자들의 계속적 입국 활동이 있었다는 일

일곱째, 일본 예수회에서 훈련받은 한국인 전교사들의 본국 교회를 위한 전교 활동이 있었다는 일

끝으로, 중국 예수회에 의한 조선 왕국 전교 활동이 있었다는 일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째 문제에 있어 Gaspar Velila 신부의 조선 전도 계획에 관한 일은 한국의 연구물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니다(유홍렬, <한국 천주교회사>). 한반도에 이웃한 일본에서 전교하는 성직자이며 불타는 포교의 욕을 소명으로 여기고 8만리 밖 동양 한 끝에 나와 전교 활동에 종사하던 전교자들이 그들의 활동 지역 이웃의 異敎 지역에 전도의 의욕을 느끼게 되고, 전교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Cosme de Torres 신부가 한국의 그리스도교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Gaspar Velila 신부를 한국 땅에 파견함으로써 '한국 교회 초대의 진정한 父祖'라고 특기하고 있으나(p. 6), Velila 신부는 조선에 건너온 사실이 없으며, Torres 신부가 1566년에 '할 일을 찾아내기 위하여 까오리에 신부를 파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p. 24)는 Velila 신부의 자필 서간에 관해 합당한 증거의 제시

없이 '토레스의 유언의 일부인 것 같다'고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다(p. 25). 과연 토레스 신부를 한국 교회의 부조로 단정할 수 있을런지, 설득력이 없는 저자의 독단이다.

둘째로 임진왜란 때 Cespedes 신부가 종자 1인과 같이 조선 출신 일본 기리스당 장병을 위해 조선으로 파견되어 온 사실은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한편 1597년에 2명의 예수회원이 조선의 일본진을 2개월간 방문한 일에 관하여는 金良善 교수가 세스페데스의 두번째 내항으로 잘못 거론한 일이 있다. 이번 메디나 신부의 저서로 그들이 예수회원 Laguna 신부와 일본인 田村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Cespedes 신부와 동행한 예수회원이 일본인 Hankan Leon임도 밝혀주고 있다. 본서의 저자는 세스페데스 신부를 일본군의 종군 신부로 조선에 건넜은 것이 아니라고 힘써 주장하고 있는 바, 물론 당시 일본군에 「종군 군목제」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니 제도적 의미의 종군 군목으로의 성직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의 초청에 의해 건너와 일본인 기리스당 장병의 진영에 거주하며, 그들 군인들의 영적 생활을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종군한 성직자,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종군 신부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세스페데스 신부가 조선 땅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전교 활동을 하였는가와 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연구자들 사이에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연구(Charlevoix, 조선의 Mgr. Brugiere, 인도의 Mgr. Louguet, 山口正之)도 있고,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Dollet의 기록이나 현대인의 연구(崔爽祐, 柳田利夫 등)도 제시되고 있다.

세째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납치된 우리 동포들 가운데 기리스당에 입교한 이른바 俘虜敎人이 다수 있으며, 이들 부로 교인들 가운데 신앙의 완덕을 다하고 순교한 교인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일본 기리스당 교회의 205 복자로 시복된 사람들이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편 일본 기리스당 신도들과 일본 예수회원에 의해 조선 부로 노예를 위한 신분 해방의 따뜻한 손길이 뻗쳐졌음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들 부로 교인들 가운데는 일본 예수회에 입회하여 전교사·수사 同宿이라고 불리우던 협조자로 활동한 분들이 있음도 알려져 있다.

저자 메디나 신부의 추적으로 長崎에 「성 로렌조 교회」라고 불리우는 한국인 본당이 10년간 존재했다는 점, 한국인 기리스당을 위해 일본 예수회 부관구장 Petro Gomez의 주선으로 한국어 「기도서」가 번역·간행되었다는 점,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소신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박 마리아라는 한국인 기리스당이 '都의 比丘尼'라고 불리우는 여성 수도회의 수녀로 있다가 동료와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로 추방되었다는 등 흥미로운 사실을 새로이 알려 주고 있다. 한편 神津島의 수호신으로 추앙받는 오마 츠미야가 그 섬에서

한 때 벗어나 長崎에 나타났다가 大阪으로 옮겨갔다가 그 후 다시 추방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다. 이상 몇 가지 사실을 밝혀 준 본서 저자 메디나 신부의 정력적 연구에 경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이상의 사실은 어디까지나 전란 중 일본에 끌려가 그리스도교인이 되어 일본에서 벌어진 사실들이다. 그들 俘虜 그리스도는 민족적으로는 한국계인 것이 사실이나, 그 자체의 역사는 일본 교회사의 일부로 일본에서 벌여졌던 일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한국 천주교 회사의 전개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이는 마치 MayFlower 호를 타고 신천지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간 영국인 청교도들의 아메리카에서의 신앙 활동이 미국그리스도교 회사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이들 제일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동포이기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며, 그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고, 현양하는 마음 그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영위한 일본에서의 신앙 생활 그 자체는 일본 그리스도교사의 값진 내용인 것이다.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한국계 그리스도가 생겼다 해서 그것을 한국 교회의 탄생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저자 메디나 신부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진한 일본인 그리스도 군인들이 침략전의 참화 가운데 가엾게도 유기된 채 죽어 가는 어린 생명 200여 명에 代洗를 주었다는 Flois 신부의 기록을 들어 제시하고, 이들 어린이들

은 “까오리 땅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첫 이삭”이며, 이 일이 있었던 1592~93년을 신학적 입장에서 “유아의 교회”라 부르며, 이 때를 한국 교회 탄생의 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란 가운데 서울에서 스스로 적장 小西行長 진영을 찾아들어간 12세의 소년이 일본으로 송치되어 Pedro Molehon 신부로부터 영세 받은 사실을 “까오리의 어른 교회”의 생겨남이며, 戰時中이라는 이상한 환경 가운데 외국에서 탄생한 한국 교회로 규정하고 있다. 저자는 그 기사에 註를 달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창립”이라는 말 대신 사실에 일치되는 “탄생”이라는 말을 썼다고 적고 있다. 또한 성직자 아닌 평신도에 의해 세례를 주는 일은 교회법에서 인정하는 바임을 부연하고 있다(註 147). 또한 다른 註에서 그의 주장이 본서의 스페인어 초판이 로마에서 발간된 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일본에서 탄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메디나 신부—서평자 註)를 식민주의자로 비난하고 필자의 의견을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적으며, “자기 주장이 歷史家 Frois 신부의 기록에 의한 것이고, 제국주의적 국가(그 시대의 중국)에서 영세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이승훈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일이며, 지금까지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1784년 2월을 한국 교회 창립의 날로 생각해 오는데 다른 지장이 없었다(의의가 제기되지 않았다—서평자—註)”고 자기의 주장을 문제삼는

한국 연구자들을 비난하고 있다”(註150).

메디나 신부의 이 주장은 한국 교회의 탄생을 1592년으로 보는 것이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창설을 1784년으로 잡고 있는 한국 교회의 공적 입장과 괴리되는 것이므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의 탄생이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첫 형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로의 조직과 계속성의 생명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빈사지경의 어린이들에게 배운 대세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교회의 탄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Kaun Vincente로 기록되어 있는 13세 소년의 일본에서의 영세는 한반도가 아닌 미국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연결되는 일이 아니라 전기한 바와 같이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俘虜朝鮮教人の 영세로 보아야 마땅하다.

한편 이 문제가 한국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논의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히메요시 조선 침략전의 일본과 이승훈이 영세를 받을 때의 중국을 제국주의 정세 아래의 동일한 정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메디나 신부의 역사 이해는 東洋史에 어두운 西洋人の 속단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나 바른 역사 이해가 있어야만 교회사도 바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가 한국 교회의 창설을 1784

년으로 잡는 것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받은 사실을 기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승훈이 귀국한 후 이벽의 집에서 10여 명의 세례 교인이 생겨나고 김범우의 집에서 이벽을 중심으로 신앙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사실, 즉 신앙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오늘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 창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200명 유아 대세 조치의 「유아 교회」, 13세 소년의 일본에서의 영세를 「대인 교회」로 규정하는 용어도 적당치 않거니와 그 사실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탄생이 1592년이니 93년으로 올려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로, 왜란 후 조선과 일본의 세 집권자 德川幕府와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본국으로 刷遷된 동포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 수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의 귀국 후 신앙 활동에 따라 한반도에 까오리교회, 즉 조선 천주교가 존재했다는 서양인들의 서간 기록의 문제이다. 다수의 쇄환 부로인들에 관하여는 내외 학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가 있다.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동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메디나 신부는 Rodrigues Giran의 서한(1606년 말)에 의하여 1603년 쇄환사로 일본에 건너간 酒深大師 일행에 섞여 교국으로 돌아간 신분이 높은 조선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적고 있다. 한편 일본 예수회에 의해 신학 교육을 받은 일본 예수회 소속의 한

국민 전교사 Kuan Kahyo Vicent가 고국으로 돌아가 전교 활동을 펴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6년간(1613~1668) 활동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 순교하게 된 사실과 1598년 포로가 되어 俘虜로 일본에 끌려가 기리스당이 되었고, 예수회의 同宿이 된 Thoma라는 한국인이 조선 정부의 고관이던 그의 부친의 교섭으로 본국에 귀환한 사실을 적고 있다. 전자 Kuan의 일은 일찍부터 한국의 학계에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으나, 후자 Thoma의 일은 생소한 인물이다. 메디나 신부는 그가 25년간 일본 예수회에서 양육되고 훈련받은 유능한 전교사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외국에서의 오랜 경험을 생각하면 그의 귀국으로 까오리에는 또 하나의 가톨릭의 燈臺가 출현한 것”(p. 101)이라고 그의 귀국 후 전교 활동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메디나 신부는 “그의 전도 사로의 활동이 문서에 의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의 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외면만의 지나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p. 101)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론을 거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기록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일을 사실로 이해해 주기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는 없다.

요전대 천행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쇄환 기리스당 동포들의 활동으로 조선 왕국에 다수의 가톨릭교도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회 신부들이 거듭 조선 왕

국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Rodorigues Tcuzu 신부의 서한(1624년 발), Gano-ne Giacomo Antonio 신부의 서한(1628년 발)과 Antonio Tomas 신부의 서한(1679년 발)이나 1666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Alcune novre ultime del Giappone〉(日本에 관한 최근의 소식)의 기록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메디나 신부는 2,3차례 걸쳐 일본 府內敎區의 주교를 대리하는 예수회 성직자가 한반도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 건너 갔다는 Rodorigues Tcuzu의 서한의 내용을 “17세기 예수회 용어로 보아 이 표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말하자면 이들 예수회사는 가톨릭 신자의 영적 일을 돌보고 신자 아닌 사람 사이에 교리를 펴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그 땅에 갔다. 그것은 Missão=포교 여행이었다”(p. 120)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쇄환 기리스당이 있을 수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다. 이런 기리스당이 있을 때 그들과 관계가 있거나 또는 전문하게 된 일본 예수회 전교 신부들이 그들의 열렬한 전교욕으로 그들의 귀국 후 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성직자를 파견하여야겠다는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이처럼 쇄환 기리스당들의 신앙 활동이 지속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놓고 거듭 서양 성직자를 맞이해 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신앙생활이 장기간 터놓고 있을 수 있다면, 전통적 유교집권자들의 눈에 또

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탄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런 사실을 전하는 공사의 기록이 조선 왕국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 후 조선 교회 탄생 후의 조선 천주교회의 동정이 집권당 사자에 의해 자세하게 査察되고 관변과 개인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당연한 주장일 것이다. 따라서 서양인에 의한 서한 기록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는 한국측 기록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 땅에 있었다는 한국 교회가 한국인의 눈에 비추어지지 않고 외부 인사들의 전문 기록에만 나타나 있을 때 과연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선입견을 떠나서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일본 예수회에 의한 한국 전도의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나 신부가 조사하여 열거하고 있는 전도 활동과 헌신적으로 조선 전도를 계획하거나 노력한 예수 회원들의 사례를 이해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에서 열매 맺어 교회의 존재를 꽃피우게 되고 그것은 당시 의혹과 박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을 현지인의 증언적 기록의 증거가 필요함을 역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제 5 장 <북경으로부터의 구상>에 나오는 北京 체류의 중국 예수회 전교 성직자와 明・淸에 파견되는 조선 왕국의 사대사행과의 만남의 문제는 예수회사의 종교적 전교육과 조선 사신의

문화적 수용육의 만남으로서 이미 이에 관해 연구된 논문이 많고 무엇을 주고 받았으며, 그 교류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밝혀져 있다. 저자 메디나 신부의 정력적 사료 추구로 중국 예수회 편에서는 다만 찾아오는 사신 일행을 만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조선 전도의 활동이 진취적으로 꾸준히 추진된 사정을 자상하게 밝혀준 점은 매우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노력 끝에 차차 만주 땅으로 포교 근거지를 옮겨가며 조선 왕국으로의 복음전도의 날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한편 예수회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도 조선 전도를 기도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장의 내용에 한 두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 하나는 중국 전도의 선구자인 Michael Rugierri 신부가 편술하여 1584년에 출간된 최초의 한역서학서인 <天主實錄>의 조선 전래의 문제이다. 메디나 신부는 1596년에 작성된 Duarte de Sando 신부의 서한에 그 교리서가 “중국에서 그처럼 널리 유포되었기에 일본인이 정복하기 위해 가있는 자오리—그곳은 중국의 한끝에 있으며 말은 다르나 그 국왕은 중국 황제의 신이다—에서 지금 잘 알려져 손 때가 묻은 우리들의 교리문답서가 발견된다”(p. 67)는 기사를 들어 1592년 이전, 즉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천주실록>이 한반도에 전해져 널리 유포되었고, 손때가 묻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천주 신앙의 씨가 싹트고 있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널리 유포되었다면 뒷날 Matteo Ricci 신부의 〈天主實義〉가 출판 10년 내에 조선 왕국에 들어온 후 학문적 호기심이 강하였던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읽고 메모한 이수광과 같은 학자의 사례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어 유포되어 그 사본이 현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天主實錄〉 조선 유포를 입증할 한국측 사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天主實錄〉 조선 유포의 진실성 여부에 의문이 없을 수 없다.

다음 Adam Shall 신부와 昭顯世子的 北京에서의 교류의 사실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미 그 전모가 밝혀져 있다.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대동하고 귀국하였다가 그가 卒死한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간 중국인 환관을 가리켜 그들이 중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국왕의 환관이였다”(p. 131)는 주장, 또는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에 직접 전도할 기회는 놓쳤으나 “까오리의 궁정에는 새로운 개종자의 일꾼이 생겼다”(p. 133), 즉 그리스도 신자의 무리가 궁중 내에 생겨났다는 메디나 신부의 주장은 한국측 사료로는 입증되지 않은 예수회측 기사에 의한 기록인 점이다. 1784년 이승훈이 복경에서 영세받을 때의 영세 신부가 Juan Joseph de Grammont이었으며, 그가 프랑스인 예수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적고 저자 메디나 신부가 “예수회에 의해

2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짧은 기간 도밍고회, 방지거회에 의한) 노력한 가톨릭 신앙에 대한 한국의 문호 개방은 바로 예수회가 소멸되었다가 재개되는 동안에 실현된 것으로, 그 일은 특히 예수회원의 한 사람인 de Grammont 신부의 직접적 조치에 의한 것이었다”(p. 169)고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예수회 창설의 공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강조에서 저자 메디나 신부가 품고 있는 자신의 소속 전교 단체인 예수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측 연구자들이 한국 교회 탄생을 세계적 이례로 파악하고 있음은 예수회원과 무관하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한역교리서가 있었음으로 인해 전통 사회 지식인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알게 된 것이지만, 서적만에 의해, 즉 그 서적의 연구를 통해 천주 신앙을 학문적으로 깨우치고 교회 를 이루었으며, 10년 후에야 성직자를 맞이해 교계 교회로 성장하게 된 그 과정이 세계에서 예가 드물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배타적인 입장에서 교회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IV

본서 편찬에 대한 저자 메디나 신부의 배려는 매우 자상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그것은 제 2부 「未刊史料」에 수록된 관계 사료의 일본 번역문의 수록과 부록으로 부쳐진 자세한 〈韓

國가톨릭敎會年代表》와 〈人名索引〉으로 인해서이다. 한편 저자의 학구욕이 얼마나 왕성한 것인가는 역시 부록에 제시된 110종의 〈參考文獻〉 목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未利史料」에 수록된 총 58건의 원 사료는 1566년에서 1698년에 이르기까지 약 130년간에 걸쳐 한국에 대한 전교활동에 관계되거나 또는 일본에서의 한국인 기리시당들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예수회 소속 성직자(두 건의 방지거회 성직자의 것과 일반 평신도들의 수기도 약간 끼어 있다)의 서간문을 번역, 수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더러는 간접적으로 그 내용이 한국 땅에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럽의 깊은한 몇 개 古文書館에 비장(秘藏)되어 있어 좀처럼 접촉이 어려웠던 귀중 사료의 번역 公刊이기에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저자 메디나 신부에게 한국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자료로 1784년 한국 교회 창설 이전의 한국 교회의 前史라 할 사실을 밝히는 데 귀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본 또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예수회와 그 밖의 동양 포교에 활동하던 여러 전교 조직의 조선 전도를 위한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전도 활동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반도 밖, 특히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韓國人 俘虜 기리시당들의 장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 인식의 깊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저자 메

디나 신부가 제 2부에 수록된 자료들에 대한 그의 연구가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그것은 그가 한 기록에 대해 존재하는 다수의 사본의 비교 연구의 귀한 결과를 장차 발표될 연구물에서 직접 접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p. 175).

부록의 〈韓國가톨릭敎會年代表〉는 1784년 이전(이후의 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연구자 즉 메디나 신부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시기의 일이라고 전제하고 謚福과 謚聖의 사실만 4항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밖에서 벌어진 전교 성직자들의 조선 전교 활동과 해외 동포들의 그리스도 신앙 수용과 실천에 관한 사실을 연대순으로 극명스럽게 기록하고 있다. 이 표를 일독할 때 한국 천주교회 前史에 관해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도 이에 대한 천착적인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0건의 〈參考文獻〉을 일별할 때, 거의가 서양에서 발간된 유럽 문헌이거나 일본에서 발간된 문헌들이며, 한국 내에서 발간된 서적은 李基白의 〈한국그리스도교사〉뿐이다. 한편 한국 교회 관계의 직접적인 연구물로 山口正之의 〈朝鮮西敎史〉(1967), 陳倫緒 신부(Chan Albert S.J.)의 〈Early Missionary Attempts in Korea〉(東亞研究 12권 수록, 1983)의 두 건 뿐이었다. 참고 문헌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인 교수 Rhee Sang Woo의 말과 에쿠아도르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를 지냈다는 Tae

Hyun Yoon 박사의 말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저자가 이 저서를 꾸밈에 있어 활용한 사료가 전교 성직자들의 기록, 그것도 「書簡」이라는 통신문에만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서는 전교를 평생의 召命으로 확신하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역 수만리의 동양 異教 世界로 진출해 온 주님의 충직한 일꾼들의 通信文 내용만을 가지고 저술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즉 한국의 교회사의 중요한 문제물 논하면서 그 교회사의 무대인 한국땅의 공사의 記錄을 일체 제외하고 그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 무대 위의 인사들의 기록이나 실증적 자료들을 일체 의면하고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최소한 이 책의 부제는 〈일본 예수회의 기록을 통해서 본 조선 개교 문제〉 정도의 限定辭가 붙어야만 했을 것이다. 즉 예수회 성직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살필 때 이런 일을 알 수 있다는 결정한 학문 자세가 바람직스러웠다. 나아가 단정적으로 한국인의 자율적 구도 활동을 통해 천주 신앙에 도달하고 북경에서 영세 받은 이승훈에 의해 대세를 받은 일단의 신자들이 스스로 신앙공동체로서의 조직을 이루고 신앙 생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성직자를 영입하여 敎階敎會로서의 발전을 추진한 사실을 「거짓된 영광」(p.5)의 역사 인식으로 매도하는 한편 한국 교회의 탄생

을 그보다 200년 앞선 1592~159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단은 조심되었어야 했다. 물론 한국 교회가 한국인의 손에 의해 돌연히 창출된 것이 아니다. 예수회 전교사와의 계속적 접촉이 있었고, 그들이 저술한 수많은 漢譯西學書가 있었음으로써, 그것이 예수회 전교 신부들에 의해 조선 사신에 계속 전달됨으로써 유교적 전통 사회인 조선 후기 사회에 그리스도 복음이 소리 없이 들어 서게 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특기하며 예수회의 補儒論의・文化主義的 전교 활동의 혜안(慧眼)을 놀라워하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다. 결코 「초점이 빗나간 국수지상주의를 넓히고자」하는 非歷史的이고 비양심적인 의도에서 꾸미고 있는 것(p.4)이 아니다. 저자의 이 발언은 어느 면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본 예수회 내에 여러 성직자들이 한반도 교화를 위해 애쓴 사실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것을 한국 교회사의 전사로 수용하기에 결코 인색치 않는다. 또한 일본 예수회가 전쟁 때 일본으로 남치되어 간 가여운 한국 동포들을 노예 상황에서 해방시키고자 노력한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또한 영적 구원의 손을 뻗쳐 다수의 기리스당이 생겨나고 그들이 신앙의 완덕을 다하고 순교한 사실에 긍지를 느끼기에 결코 인색치 않는다. 저자 메디나가 한국측 연구물에 다소간이라도 눈을 돌렸더라면 한국인에 의한 이런 연구물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저자가 한국 문헌을 독파할 수 있는 어학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그의 연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가 의식적으로 한국의 기록·연구물을 배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V

이상 메디나 신부의 다년간의 연구에 의한 노작을 몇 가지 각도에서 논고하였다. 그가 그의 소속 단체 예수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정력을 다하여 연구한 이 저작물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과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연구자들만이 알고 있었던 일에 관해 알게 되었다.

한국 교회 창설에 앞서 일본과 중국에서 이교도 구령에 헌신하던 예수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한반도 전교를 위해 헌신하였는가를 소상히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왜란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으로 납치되어 간 한국인 포로들에 대하여 베푼 인도적 사랑과 종교적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위로 받고 영생의 길에 오를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한편 그 큰 사랑 속에 신앙을 얻고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구령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적국이던 일본 땅에서 순교로서 천주에 대한 완덕을 다하고 신앙의 귀감으로 영통한 빛을 발하고 있는 한인제 일본 기리스탄 순교자들의 사실을 감격으로 대할 수 있

는 지식을 더욱 확충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들을 一次的 原史料를 통해 정리해 주었고, 또한 그 원사료를 증거로 제시해 준 저자 메디나 신부의 그간의 노고와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독하고 여러모로 분석해 보고서도 끝내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탄생을 1592~1593으로 올려 잡아야 하고, 본국 송환의 기리스탄 동포에 의해 한반도 내에 교회가 생겨났으며, 그 교회를 위해 예수회 성직자들이 한반도에 출입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일은 저자 메디나 신부가 품고 있는 일부 한국 연구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가짐이다(차례에 메디나 신부를 식민주의자로 몰아 세운 한국 연구자가 있었다는 일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의 뜻을 메디나 신부에게 정중하게 전하는 바이다).

메디나 신부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여러 전교회 관계자의 서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켰다. 여기에서 우리는 「書簡」에 대한 史料學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간은 서신 작성자의 직접 경험을 사실을 가지고 작성되기도 하나, 한편 제3자로부터의 전문 내용을 담은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서신 작성자의 感情 移入이 강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메디나 신부가 이용하고 있는 서간도 상당한 내용이 전문에 의한 것임을 면밀히 검토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저자가 신빙성을 확신하고 이용한 기록(예를 들면 Fróis의 일본사)은 후대의 편집물로 1차

사료는 아니다. 물론 서평자는 서간이나 편집물 전체 내용이 잘못이라고 강변(強辯)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기 위하여는 論證의 復數 提示의 원칙과 더불어 해당 현지측의 증거가 아울러 제시되어야만 한다. 즉 조선왕국 사료에도 조선 교회의 존재와 귀환 기리스당의 신앙 활동의 사실이나 혹은 그들 활동의 遺傳이나 遺跡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박해자의 사적에 그런 사실이 오를 수 없다는 抗辯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784년 이후의 한국 교회에 관한公私의 기록이 허다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 200년간의 한국 교회(?)의 존재에 관한 기록의 片鱗조차 아직까지 눈에 띄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서로 반신반의에 빠져들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지니게 된다.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敎會의 誕生」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탄생은 긴 인생을 살아갈 새생명의 출생을 뜻한다. 즉 출생과 더불어 계속의 시발을 뜻한다. 한편 교회의 원어인 "eklēsia"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소집된 집회를 의미한다(가톨릭大學, <聖書神學辭典>, p. 50). 또한 믿는 이의 신앙공동체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인이 생겨났다는 사실과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일은 달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를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직이요, 계속적인 예배의 모듬이라고 전제할 때, 전란 가운데 숨겨가는 어린이들에게 세

(洗)를 붙여 준 사실로 교회의 탄생이라고 규정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편 「韓國敎會」는 한국 땅에 생겨난 한국인의 교회를 뜻한다. 이국 땅에 생겨난 한국인의 교회는 비록 그 인적(人的) 주체는 한국인일지라도 그 교회 자체, 그나라 교회의 지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논할 때 1784년에 이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례 교인들의 의식적 信仰 集會요, 계속적 信仰 組織의 존재인 信仰共同體야말로 한국 교회의 탄생이요, 창설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전의 일에 관한 본서의 내용은 한국 교회의 前史 내지는 序史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짓는다 하여 예수회사들의 고귀한 전교 활동의 가치와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본 기리스당 한인 교인들에 하자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회 전교 성직자들이 일본과 중국 땅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음으로써 한반도에도 천주의 소리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한국 지식인들이 해독할 수 있는 한문으로 귀중한 한역서학을 다양하게 저술하였음으로써 한국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연구검토를 거쳐 천주 신앙을 터득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며, 계속적으로 신앙자극과 司牧·敎導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인의 천주 신앙이 풍요로워진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회의 이 위업은 그 빛이 찬란하게 역사에 기리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귀환 한인 기리스당의 후에

들이 일본의 「隠れキリスタン」(潛伏 그리스당—필자 註) 처럼 노출되지 않은채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p. 10) 우리는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저자 메디나 신부가 지금까지 쏟아온 한국에 대한 애

정과 연구를 완결짓기 위해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사료를 섭렵하고 한국인의 연구를 정독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주님이 그에게 건강과 明悟를 풍성히 내리시기 기구하며 이 서평을 끝맺는 바이다. *